

유럽 현대무용의 미학적 변이와 표현형식 연구

오 선 명*

I. 서론

II. 유럽 누벨 당스(nouvelle danse)의 특성

III. 미학적 변이와 몸에 대한 인식변화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유럽 현대무용을 통하여 나타난 특징인 움직임의 부재(不在), 쇠말주의(trivialism) 퍼포먼스, 해프닝(happening)의 우연성, 미니멀리즘(minimalism), 탄츠테아터(tanztheater)의 연극성, 누드(nude)의 과잉출현과 실존성, 타 예술과의 융합 등 새로운 미학적 개념의 변화와 표현형식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하지만 이 모든 특징을 지칭하는 정확한 단어는 아직 정의내리기 이르며, 이 연구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오늘날 유럽 현대무용의 공연형태는 예술의 경계를 초월한 혼합된 창작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는 다양한 문화와 타 예술과의 만남, 융합 그리고 수용을 통해서 형성된 외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럽 현대무용의 외형적 특징들은 자주 관객들이 예상했던 코드를 뒤흔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새로운 경향의 무용공연을 보면서 관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날 현대예술 경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미학적 개념과 형태들은 과연 춤의 범주 안에 속할 수 있는가? 현대예술의 특성상 오늘날의 무용은 창작의 작업과정을 통해서 점점 진행되고 변화하고 있는데, 타 예술과의 만남, 혼합은

* 주저자 및 교신저자, 성균관대, 한양대 강사 mians@naver.com

과연 안무예술의 새로운 계면(inter-face)을 제시하는가?

1990년 중반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안무의 변화들에 대한 담론을 충분히 자세 한 의미와 개념으로 규정짓기에는 오늘날 무대에 오르는 공연들이 너무나 방대하 다. 이런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한데 현대의 유럽 컨템포러리 댄스를 이해하 고 미학적 변이(變異)를 결정짓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고 또한 좀 더 심 층적이고 지속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들어가기 전에 언급해야 할 것은 보는 이(viewer, 관객, 비평가, 이론가, 프로그 래머 등)의 지각(perception)이론에 대해서다. '시각적인 현상 중 의미를 생성해내 는 것은 목격자의 몸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을 만들 어내고, 역으로 내 몸 상태가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보는 것에 대해 해석을 한다.'¹⁾ 또한 보는 사람의 관점은 사회와 문화의 역사에 영향을 받은 주체적인 시각적 감각 의 행위로서 구성이 된다.

오늘날, 현대예술가들은 예술경계가 애매모호하게 혼합된 예술창작의 형태를 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술분야의 경계를 초월한 21세기의 표현의 모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대 안무예술가들은 특별한 형태를 창작하기 위해 무제한 개혁을 할 수 있는가?

오랫동안 자주 반복되는 질문인 오늘날 현대무용은 무엇인가? 현대무용은 새로운 이방가르드(Nouvelle avant-garde)인가? 제3의 예술 형태의 변형인가? 라는 문제 제기는 21세기 유럽 현대무용의 개념정립과 미학적 변이를 연구하는 것과 연결된다.

복잡하고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구성미의 형태 보다는 몸과 주위환경 또 몸과 정 신, 정서에 초점을 맞추면서 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새로운 개념으로 가정되는 안무 개혁의 움직임에 말하는데, 이 흐름은 아직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거나 이름을 붙 이기에는 이른 경향이 있다. 하지만, 90년 중반부터 유럽의 현대무용은 춤을 많이 또는 거의 추지 않는 경향이 점점 보급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을 '농 당스(non-danse)'²⁾로 다수의 비평가들은 구분 짓고 본 연구에서는 이 단어를 선택하여 지칭

1) Hubert Godard, *Le geste et sa perception*, La danse XXe siècle, (Paris: BORDAS), p. 224.

2) Dominique Frétard (2004), *Danse contemporaine - Danse et non-danse*, Cercle

하기로 한다.

대표적인 젊은 안무가 세대로는 프랑스의 제롬 벨(Jerome Bel), 사비에 르 로이(Xavier le Roy), 보리스 샤마츠(Boris Charmatz), 알랑 뷔파르(Alain Buffard), 스페인의 라 리보(La Ribot), 포르투갈의 베라 만테로(Vera Mantero) 등이 있고 기성 안무가 세대로는 작품의 성향에 따라 얀 파브르(Jan Fabre), 샤샤 왈츠(Shasha Waltz), 맥 스투어트(Meg Stuart)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한 문헌자료 및 인터넷을 통한 해외신문 자료와 연구자가 국내에서 무용 페스티벌 - 모다페(Modafé 국제현대무용제)와 시댄스(SIDance 서울세계무용축제)-과 국외에서 농당스 경향의 공연을 직접 관람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이 되는 80년대 유럽에 보급된 '누벨 당스 (Nouvelle danse)'의 특성을 알아보고 90년 중반부터 시작된 농 당스의 개념을 통하여 오늘날 유럽 현대무용의 미학적 변이와 표현형식에 대해서 연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위에서 나열한 대표적인 안무가들의 2000년대를 전후로 작품에 대한 이론적, 지각적 자료에 대한 연구로써 시기적 제한과 유럽 현대무용의 중심을 이루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지리적 제한이 있음을 밝히고 모든 유럽 현대무용을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농 당스'라는 단어 사용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인데, 유럽의 비평계에서는 이미 언급되는 개념이지만, 안무가들에게는 한단어로 지칭되기에는 단정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양극화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학계와 비평가들에게 언급되고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본 연구에서는 이 단어를 선택하여 지칭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농 당스(non-danse)'의 구분과 개념은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움직임의 부재(不在)에서 온 개념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비교분석이 추후에 요구된다. 예술 범주의 틀을 깨는 것은 현대예술의 주요한 특성이며 프로세스의 개념으로

d'art.

르 몽드(Le Monde)지 무용전문기자이며 무용비평가인 도미니크 프레타르드는 2004년 발간한 '현대무용'이라는 책에 '농당스(non-danse)'를 부제로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날 현대무용의 흐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무용도 예외는 아니다. 관객의 감각을(특히 시각) 통해서 수용되는 현대의 안무코드의 변화, 혼란 그리고 적응을 통해 오늘날의 유럽 현대무용의 지형도를 살펴보려 한다.

II. 유럽 누벨 당스(Nouvelle Danse)의 특성

유럽의 현대무용계에서 90년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뉴 당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벨 당스(Nouvelle Danse)’의 배경과 특성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한다. 누벨 당스는 ‘젊은 춤(Jeune danse)’으로 호칭되면서 80년대 전후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등지에 나타난 현대무용의 새로운 미학적 코드이며, 조류이다. 클래식 무용의 거부에서 나타난 누벨 당스는 80년대 유럽의 컨템포러리 댄스를 대표하는 춤으로 결과적으로 오늘날 유럽 현대무용의 정체성을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공헌을 하게 된다.

유럽의 현대무용은 거시적으로 두 움직임으로 구별되는데, 첫째는 아카데미즘의 방향으로 전통적인 클래식 정신에 의하지만 정도가 벗어난 것이고, 둘째는 클래식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거부 또는 반대하는 방향이다. 여기서 후자의 움직임은 오늘날의 유럽의 컨템포러리 댄스를 특징짓는 ‘연극의, 극적의(théâtrale)’ 요소를 가지게 된다.

80년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프랑스 현대무용은 개괄적으로 ‘연극적’이라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극이나 마임과 더불어 많은 외부의 무용사적 영향을 받았다. 미국의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 엘빈 니콜라이(Alwin Nicolais), 저드슨 처어치(Judson Chuerch)의 예술가들, 해프닝(happening)과 퍼포먼스(performance), 독일의 탄츠테아터 안무가들(피나 바우쉬, 수잔 링케, 호프만 등), 또 가깝게는 아프리카의 무용과 멀게는 일본의 부토(buto)에서까지 영향을 받았다.

누벨 당스는 무대장식의 과감한 사용과 텍스트와 목소리를 사용한 연기, 표현적인 움직임,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안무구성에서는 반

복(la répétition)효과, 안무구조의 해체(la déconstruction), 단편화(la fragmentation), 음악의 몽타주 사용 등 독일 탄츠테아터 - 특히, 피나 바우쉬(Pina Bausch)의 안무스타일- 와 직접적으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유사성은 역사 속에서 변화되어 온 표면적인 것이고, 프랑스 현대춤 움직임의 미학은 탄츠테아터의 그것과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구별이 된다.

'68년 5월 혁명' 에³⁾영향을 받은 70-80년대 프랑스 현대무용은 표면적으로는 피나 바우쉬의 탄츠테아터와 관련이 있지만, 누벨 당스는 상투적인 장르의 제한을 무시하고 새로운 몸의 무대연출(mise en scène)과, 섹스(sex)나 사회의 금기(taboo)같은 자유를 숙고하게 된다.⁴⁾

누벨 당스 세대들은 클래식 수용을 거부하며, 프랑스의 사회, 정치, 역사 속에서 개인적인 내부의 경험, 표현, 감정에 대한 작업에 집중하면서 장르를 넘은 혼합식의 방식을(연극, 조형미술, 서커스 등) 점점 찾게 된다. 80 년대를 지나면서 안무가들은, 조금씩 외국의 영향을 받은 모델을 배제하면서, 안무가 내부의 영감의 다양성과 지성화된 작가 경향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안무가들로는 도미니크 바구에(Domonique Bagouet), 마기 마랭(Maguy Marin), 장 끌로드 갈로타(Jean-Claude Galotta), 안젤랑 프레조까쥬(Angelin Preljocaj), 마틸드 모니에(Mathild Monnier) 등을 꼽을 수 있다.

90년 중반부터 젊은 안무가들은 연극적 요소에서 참고나 모델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대신 조형미술, 일렉트릭 음악의 변화, 비디오 같은 멀티미디어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예술적 표현이 촉매작용을 한 독특한 형태로 나타내며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안무코드의 혼란함의 근본 요소인 움직임의 최소화 또는 움직임의 부재(不在) 현상을 보이게 된다.

3) '68년 5월 혁명' 은 프랑스에서 학생과 근로자들이 연합하여 벌인 대규모의 사회변혁운동으로 드골정부에 항의하여 사회와 교육의 모순과 관리사회에서의 인간 소외등을 다루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후로 일어난 중요한 사회문화혁명이다.

4) Isabelle Ginot (1999). *Histoire et Illusion-Théâtre dansé de notre temps*, Arche, p.76.

III. 미학적 변이(變異)와 몸에 대한 인식변화

1. 농당스(Non-danse) - 움직임의 부재(不在)

2000년대의 현대무용의 개념은 80년대의 유럽을 중심으로 선보였던 누벨 당스와는 또 다른 성향과 새로운 미학적 개념에 접근한다. 장르 속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 개념은 90년대 중반부터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 독일, 스위스, 벨기에를 중심으로 유럽의 무대에서 점점 넓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현대무용무대에서는 모든 것을 행하고, 보여주는 것이 허락되는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의 창작을 위해서 현대 안무가들은 더 이상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는가?

움직임의 분실, 몸과 움직임의 결여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는 현재 안무예술의 중심을 서서히 차지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조형예술의 수용으로 무대는 그 장르의 경계선을 초월해 가고, 무용수들은 움직임의 최소화 또는 의도적인 움직임의 분실, 누드(nude)출현 등을 행하면서 그 동안 현대무용에서 익숙해지고 정형화된 틀에서 나오기를 시도한다. 이런 움직임의 부재는 동작에 대한 거부이며 저항이다. 이것은 농당스(Non-danse)⁵⁾라는 개념의 현대무용의 새로운 안무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 새로운 단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류도 있는데 바로 농당스 중심에 있는 안무가들이다.

무용의 본질적 정의를 은연중에 회복시키는 동시에 부정적인 논리를 삽입하여 복잡한 글의 해석 보다는 아무런 의문 없이 단지 움직임을 나타내는 한 가지 기준을 사용한 '농 당스(non-danse)' 라는 표현은 정작 모든 해당 안무가들에 의해서는 한결같이 거부되었다. 왜냐하면 이 표현에는 그들을 일단 무용분야 외로 재계된 일을 부정/거부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어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⁶⁾

5) 농 당스(non-danse)는 1990년 중반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기존의 무용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타 예술분야 (연극, 영상, 텍스트, 조형미술, 음악)가 통합된 다전공 분야의 무대예술이다. 주요 안무가로는 프랑스의 제롬 벨(Jérôme Bel), 보리스 샤마츠(Boris Charmatz), 사비에 르 로이(Xavier le Roy), 스페인의 라 리보(La Ribot), 포르투갈의 베라 만테로(era Mantero) 등이 있다.

6) 제랄드 메이언 (2008). 비평미학과 자기비평적 경계. 「춤과비평Ⅱ : 한국무용예술학회, p.24.

농 당스에서 ‘non(no)’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기반을 내면에 동반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두 가지 요소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상징적으로 ‘파리 오페라의 나라’로 불린 프랑스는 클래식 문화의 비대함에 비해 현대 무용은 늦게 발전하게 되는데, 70년대 중반을 지나 80년대가 돼야 비로소 누벨 당스의 지형도를 보였다. 이러한 누벨 당스의 경향은 클래식 발레를 수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특성이 더 강한 면을 보이고 있다. 둘째로는, ‘68년 5월 프랑스 혁명’의 새로운 이념을 들 수가 있는데, 프랑스 사회 체제,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일으켰던 이 혁명은 단지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뿐만 아니라, 언어, 행동, 사고 등 예술가들의 창작 작업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 저항시기에 문화의 변화를 누벨 바그(nouvelle vague)⁷⁾로 부르면서, 무용도 이 정신에 합류하게 된다.

21세기의 젊은 안무예술가들은 움직임의 테크닉보다는 그것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에 집중한다. 이 젊은 세대들은 다른 예술분야에서도 벌써 보인 미니멀리즘(minimalism) 형태들에 관심을 보인다. 사실, 이런 흐름들은 무용사에서 보면, 60-70년대의 퍼포먼스와 해프닝, 특히 뉴욕에서 행해진 작품들과의 경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움직임의 분실은 사실 새로운 미학적 변화는 아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젊은 안무세대들의 최소한의주의 -미니멀리즘(minimalism) 형태는, 최소한, 극소한 을 강조한 미술사조의 미니멀 아트 개념을 60년대 미국의 저드슨 처치(Judson Church) 안무가들에 의해 수용되어 무용분야에서도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창작과정과 아이디어를 중요시하는 요인은 개념예술에서 그 맥락을 짚어볼 수 있다. 2001년 비엔나에서 제롬 벨, 라 리보, 사비에 르 로이 등의 개혁적인 안무가들이 제안한 선언⁸⁾을 보면 그들의 안무창작작업이 어느 범주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7) ‘누벨 바그(nouvelle vague)’는 1960년대 시작된 프랑스 영화운동으로, 영어로는 ‘뉴 웨이브(new wave)’ ‘우리말로는 ‘새로운 물결’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정신은 영화가 중심이지만 다른 예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www.wikipedia.org 참조.

8) 2001년 10월 비엔나에서 제롬 벨, 라 리보, 사비에 르 로이, 비평가 그리스토프 바벨레가 <유럽 공연정책 선언(Manifesto for a European Performance Policy)>을 제안하고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주선했다.

가능할 수 있다 :

우리의 실천은 우리가 작용하는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 기반하는 용어들로 묘사될 수 있다. 우리의 실천은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있는데, 몇 개만 열거해보도록 하겠다. 퍼포먼스, 아트, 라이브 아트, 해프닝, 이벤트, 바다 아트, 컨템포러리 무용/연극, 실험무용, 신무용, 개념무용, 독립, 후기 식민주의 무용/공연, 거리무용, 도시무용, 무용극, 댄스 퍼포먼스.⁹⁾

현대 안무가들은 움직임의 부재를 시도하고 그 안에서 관객에게 직접 움직임을 찾게 만든다. 이런 공연들은 행위자가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작품의 분위기에 따라 형태가 이루어진다. 농 당스는 움직임과 볼거리에 진저리가 나버린 누벨 당스의 과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80년대 누벨 당스 시대에 공연들을 ‘과잉/지나침’의 작업이라는 성향을 볼 수 있는데, 엄청난 규모의 무대세트나 무용수들의 고난의 테크닉이나 지칠 때까지 하는 육체소모 그리고 자주 폭력 적인 동작들이 그것이다. 관객들은 넘치는 공연들을 통해서 과다한 동작기술의 현혹에 길들여진 눈을 갖게 되었으며, 그때 무용수로 활동하던 이들은 ‘난 어린엽소처럼 충분히 뛰었어.’¹⁰⁾라고 증언한다.

무용수들은 스텐트의 명수, 쇼크의 예술가들이며, 충격과 압박에서도 반대로 그들의 생기를 찾으면서 어떤 넘어짐이나 충돌에서도 지치지 않았다.¹¹⁾

농 당스의 대표적인 프랑스 안무가 제롬 벨(Jérôme Bel)의 작품들은 ‘안티-공연(anti-spectacle)’의 형식으로 기존의 무용공연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1995년 본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작품 「제롬 벨」은 기술적인 몸의 테크닉과 움직임은 완전히 거부되고 무대에서 금기했던 몸의 지속적인 행위(방노행위), 세노그래피(scenography)의 간소화, 나체출현의 무대 등 관객의 기존 무용에 기대를 벗어나고 공연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해주었다.

9) André Lepecki (2001). *Concept and Presence-The contemporary european danse scene*, Alexandra Carter, p.172.

10) Alain Buffard, 누벨 당스 세대의 무용수이자 안무가로서 ‘association pi:es’ 무용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4년 비엔나 ImPuls Tanz Festival에 참가했다. Gérard Mayen (2004), *Un bouleversement des codes*, Centre Pompidou, Direction de l’action éducative et des publics, p. 23.

11) Isabelle Ginot (1998), *Regard*, Armand Colin p.12.

모든 무용수들은 알몸으로 있다. 그들은 무대에서 알아 볼 수 있는 동작을 그려내는 넓은 움직임의 구사하지 않는다. 변화가 묻어나는 동작이나 조화롭고 표현적인 연속동작도 구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몸을 드러낸다. (...) 그들은 소변을 누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생리기능을 의도적인 문화적 행위로 바꿔 놓는다. 이 액체를 문체 도구로 사용한다.¹²⁾

제롬 벨의 작품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The show must go on」(2001)¹³⁾은 관객의 귀에도 익숙한 대중음악을 연결하여 전문무용수가 아닌 20여명의 일반인 무용수들이 그들의 캐릭터, 결점, 신체적 틱(tic), 아이디어, 무모한 열정을 최소한의 오브제와 함께 무용수로서의 조형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몸짓을 선보였는데, 춤은 있으나 ‘춤’ 성이 존재하지 않은 무대으로써 오늘날 유럽 현대무용의 주요한 특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용의 존재론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그의 공연은 퍼포먼스와 공연사이에서 작용하고 있고 농 당스의 표현형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용의 본질인 움직임, 그것의 부재는 ‘춤이 없는 춤’과 연극적 효과도 없는 ‘연극 없는 연극’ 형태를 나타내면서 오늘날 유럽 현대무용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러한 농 당스의 흐름은 유럽 컨템포러리 댄스가 기존의 공연에서 다른 개념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도구이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개념의 정의는 아직은 명확한 이름을 붙이기는 이르고 정확한 지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심도있고 풍부한 역사적 기반과 연구가 필요하다.

제롬 벨, 라 리보, 베라 만테로 등 이 흐름의 선두주자들의 안무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다 :

재현에의 불신, 목표로서 거장에 대한 의심, 비본질적인 소품과 장치요소의 삭제, 무용수의 실존 주장, 시각예술과의 깊이 있는 대화, 시각성(visuality)비판이 전달하는 정치학, 공연 이론과의 깊이 있는 대화.¹⁴⁾

12) 제랄드 메이언(2008), p.18.

13) 「쇼는 계속되어야한다. The show must go on」은 2005년 5월27일 모다페(Modafe 국제현대무용제)에 내한공연을 가졌다. 세계 현대무용계의 촉망받고 있는 안무가 제롬 벨의 이 무용극은 18개의 유명팝송과 20여명의 일반인무용수가 일상의 몸짓과 함께 안무가의 철학과 탁월한 구성력을 볼 수 있었던 작품이다. www.modafe.org.참조.

14) 공연과 리뷰(2009 여름호). André Lepecki, 김지명(역), 유럽현대무용계-미학적 변화와 실존성(Concept and Presence-The contemporary european danse scene), p.220.

21세기 유럽의 컨템포러리 댄스 공연들은 움직임의 최소화, 쇠말주의(Trivialism)에 빠진 일상의 몸짓과 자질구레한 소품들(오브제)의 나열, 퍼포먼스나 해프닝 우연성, 탄츠테아터의 연극성, 다른 예술과의 결합(조형예술의 설치와 비디오 댄스)등의 경향을 나타내면서 누벨 당스 작품들과 유사해보이지만 앞선 세대에 반하여 움직임의 부재라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테크닉의 단절은 본래의 몸과 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요즘 무대에서 누드(nude)의 출현은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2. 몸에 대한 인식변화

몸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필수적인 것이다. '육체는 그 자신의 계통발생학적 역사의 일종의 박물관을 표현한다.'¹⁵⁾ 몸은 역사를 내포하고, 다양한 몸짓, 기능, 기술 등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세계와 연결된 한 체계이다. 다양한 타입의 나체의 출현,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관점들은 무엇보다 몸과 그의 문화의 복잡성을 재구성하는 데에 질문을 한다.

최근의 몸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 인간의 몸이 억압의 대상인 동시에 해방의 주체로서 말해지고 있듯이 예술에 있어서 특히 무용에서 인간의 몸은 표현의 대상인 동시에 표현의 주체이며 수단이기도 하다. 춤을 춘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표현이며, 의식의 한 반영인 것이다. 몸짓이 능동적, 실천적이며 사회 역사적일 때는 그러한 살아 있음의 몸놀림이 춤이고 바로 그 춤은 몸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자연주의 이념은 코르셋으로 엄격히 통제했던 몸,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과 구속받는 것을 비판하였다. 19세 후반부터 몸의 해방과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무용에서는 클래식 발레의 튜튀(tutu)와 토슈즈에서의 자유로움이 이루어진다. 20세기 초기 현대무용의 선구자들은 맨발과 자유로운 육체로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이사도라 던컨, 루이스 세인트 데니스, 도리스 험프리, 루돌프 라반 등 벗었다는 논란에서 벗어나 신체 그자체로서 예술적 가치를 찾는 시도로 누드(nude)출현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15) 김정현(2000). 「나체의 몸 철학」(서울: 문학과 실사), p.190.

다지기 시작하였다.

몸이 연구대상으로서 본격적으로 부상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다. 몸과 욕망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일상생활의 역사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대중이 문화에서 지닌 지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발달하면서 성에 대한 이론이 인간의 삶을 밝히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페미니즘 이론이 발전하면서 근 현대의 경제, 정치적 체제에 성적 억압이 내재한다는 사실, 성별 구분이 전신과 물질의 전통적 구분과도 상응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왔다는 비판적 각성이 작도하기 시작한 것도 그 원인이다. 몸, 육체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에서도 몸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한다. 사진, 회화, 조각, 영화, 무용, 연극 등 각 매체마다 몸을 소재나 주제로 표현해왔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반인종차별주의, 평화주의, 여성해방주의 등의 저항문화로서의 자연주의 또는 나체주의 성향이 나타나면서 전위 예술가들은 사회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한 방향으로 누드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70년대의 자연과 유토 피아에 대한 귀로, 80년대 누벨 당스의 성(性)의 이미지, 환영적인 연출, 90년대의 무대에서 코드화, 기호화처럼 돼 버린 과잉 증가된 나체출현을 볼 수 있다. 현대무용사에서 ‘누드(nude)’ 에피소드는 감각을 초래하며, 작품에서의 이야기, 이미지, 의도 등 의미를 만들어 간다.

21세기 현대무용공연 무대는 누드의 물결이다. 이것은 도발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 대중에게 아직 넓게 ‘터부(taboo)’ 로 자리 잡고 있는 도덕관념에 역으로 가는 선동이고 도전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많은 안무 예술가들이 공연의 일반적 것에 대조됨을 찾아볼 수 있다.

2005년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초연한 얀 파브르(Jan Fare)의 「눈물의 역사」는 인간의 체액 시리즈의 완결판으로 인간 몸의 사회적, 철학적, 육체적, 에로틱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표현하는지를 다루었다. 무용수들의 누드 출현과 몸에서 원초적으로 배출되는 피, 땀, 침, 눈물, 소변 등 신체의 근원적인 체액을 주제로 기괴한 상상력을 무대에서 구체화시켰다. 「여자가 남자의 주역이었을 때-Quando l' Uomo principale è una Donna」는 여성무용수의 누드솔로가 자웅동체(雌雄同體)

의 도발적인 이미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사회의 몸에서 자연의 몸으로 회귀를 표현하였다.¹⁶⁾ 얀 파브르의 안무는 90년대부터 줄곧 몸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인간의 신체에서 '취약함'과 '나약함'의 주제는 그의 작품을 구성하는 중심테마가 된다. 눈물, 피, 배설물 등의 체액, 삶과 죽음, 움직임과 부동(不動)사이의 미묘한 경계에서 몸에 대해 질문하고 가혹하거나 변용시킨다.

안무가에 따라 몸의 대한 해석과 안무에서 누드출현의 구성이 다른데 다음은 제롬 벨과, 사비에 르 르와 등 농 당스의 대표적인 안무가의 작품의 예이다. 「제롬 벨」에서 안무가는 완벽한 근육의 몸과 에로틱의 몸, 이 두 가지는 제외시키기를 원했다. 인간의 모든 문화에서 섹스와 힘은 몸의 지배적인 표상이라 할 수 있는데, 제롬 벨은 코드화된 메시지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예술적 구조의 몸의 숨김에 집중한다.¹⁷⁾ 이러한 경향은 예전의 완벽한 비율로 다져진 근육을 가진 몸의 기준에 대한 거부이며, 주로 누드를 통해 몸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2004년 국제현대무용제(Modafé)를 통해서 많은 실험적인 작품들이 선보였는데, 사비에 르 르와 (Xavier le Roy)의 솔로작품인 육체의 변형을 주제로 했던 「미완성 자아 Self-Unfinished」이나, 사샤 왈츠(Sasha Waltz)작품에서 볼 수 있는 두 무용수의 몸의 부분을 하나의 몸처럼 기형적이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작품들은 그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신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며,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체 형태학의 이미지를 초월하는 표현, 즉 기이한 육체표현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근본적으로 몸과 무용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남성, 여성의 몸에 대한 정체성의 문화적, 사회적 테마는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인데, 단지 남성, 여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불평등한 관계를 알리거나, 애매모호함을 드러내거나, 사회구조의 방식의 문란함 등을 보여준다. 4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의 관계를 주제로 한 알랑 뷔파르(Alain Buffard)의 「배치 3.1-Dispositif 3.1」, 이나 여성 육체의 구조형태를 기괴하게 강조하기 위해 인공보철기를 이용해 몸의

16) 얀 파브르(Jan Fabre) 안무작 「눈물의 역사」(2005)는 2006년 2월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 첫 내한공연을 가졌고, 「여자가 남자의 주역이었을 때」는 2008년 모다페(Modafé)에 초청되었다.

17) Gérald Siegmund(1997), in *Ballet international*, Tanz aktuell, avril 1997

이미지에 대해 집중시킨 줄리 니오쉬(Julie Nioche)의 듀오작품 「더블엑스-XX」 그리고 리비도(libido)¹⁸⁾에 대해 작업한 마틸드 모니에(Mathilde Monnier)의 「사인하는, 사인하는-Signé, signés」같은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¹⁹⁾

현대에는 몸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시기보다 더 강화되고 있으며, 인간의 존재성을 관념적 전통 속에서의 정신적 존재로서보다도 시각적인 육체적 존재로 보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몸의 인식에서 탈피하고 근육 개개의 움직임에 중점을 둔 신체 자체가 춤이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기존의 무대를 파괴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한다. 이러한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과거 사회에서 금기시 되었던 누디즘(nudism)이 현대 사회에서는 부분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유럽 현대무용 무대에 변화를 가져왔다.

3. 농당스(non-danse) 경향의 분류

오늘날, 젊은 안무가 세대들의 농 당스 (Non-danse)경향은 움직임의 분실 또는 반대라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아직은 긴 역사적 기반을 구축하지는 않았지만 90년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보여진 경향을 통해 거시적으로 주요한 두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개념주의 (conceptualism)와 움직임주의(movementism), 쇠말주의(trivialism)와 추상주의(Abstraitism)²⁰⁾

개념주의(conceptualism)는 조형미술분야에서 온 개념아트(L'art conceptuel)로, 기존 형식을 파괴하는 반(反)예술적 제작태도를 가리키며, 종래의 예술개념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첫걸음을 시작했다. “개념무용 (la danse conceptuelle)”, “행

18) 리비도(libido)는 전문분석학적인 용어로 성충동을 의미하는 말로 융이나 프로이트 등의 연구에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개인적 발달이나 개성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생적인 에너지를 의미한다. www.wikipedia.org 참조.

19) Gérard Mayen(2004), *Centre Pompidou, Direction de l' action éducative et des publics.*

20) *La Jeune danse et après?*, Les Saison De La DANSE, 2001년. 춤의 계절이라는 프랑스 전문 무용지에서, 국립 무용센터(CND-Centre national de la danse)와 바뇰레 국제안무 페스티벌(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Saint-Denis)과 공동편찬으로 1997년부터 젊은 안무가들에 대한 인명조사와 그들의 안무의 경향을 정리해놓은 책을 매년 출판하고 있다.

위무용 (la danse performatif)” 정도로 불리는 이 개념들은 종래의 무용에 대한 관념, 즉 움직임의 거부하고 완성된 작품 자체보다는 아이디어나 과정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띤다. 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경향은 춤추는 몸이 주가 되었던 종래의 무용공연에 대한 저항인데, 제롬 벨, 베라 만테로, 라 리보, 브누와 라샴브르 등의 안무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움직임주의(mouvementism)는 개념무용과는 대립되며 다른 분야에서 빌려 오지 않은 움직임이라는 요소에서 그 우위를 찾을 수 있다. 즉흥무용의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며 서로 다른 춤의 색조를 띠면서 다양한 뉘앙스를 가진다. 이런 두 경향은 적어도 무용의 구조에서 살아있는 안무가의 감수성에 주목한다.

앞서 언급한 구분과 함께, 오늘날의 젊은 안무가 세대들은 쇠말주의(trivialism) 작품에서 추상적 경향의 특징까지 보이기도 한다.

쇠말주의(trivialism)작품들은 일상성의 자질구레한 일을 세목 묘사하는 태도로서 무용에서 이런 특성은 연극성에서 빌려 오기도 한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는 무대 위의 일상성은 저드슨 처어치(Judson Church)안무가들의 일상의 미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넘나들었다는 것에는 같은 축이지만, 일상의 미학을 넘어서 쇠말주의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추상론자들의 작품들은 무용자체에 대한 제도와 관습을 내성하면서 춤추다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한다. 추상(abstract)에서 온 이 단어의 애매하고 난해한 특성은 기존의 양식에 반(反)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20세기 예술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안무가들은 심리적인 감정에서 출발하고 연구한 제스처들 또는 반대로 현실에서 얻은 제스처들을 이용하며, 창작 작업의 소재나 재료는 이런 제스처들과 춤 사이에서 나오게 된다. 이것은 춤 자체를 통한 춤의 통찰이며, 이런 형태는 자의식적 무용, 즉 메타무용(méta-danse)²¹⁾으로 불리며, 역사적으로 머스 커닝햄(Merce

21) 메타(meta-)의 사전적 의미는 after, with, change, 따위의 의미를 지닌다. 예술에서 메타는 예술에 관한 예술이며, 소설, 연극, 무용, 영화, 음악, 사진 등 다양한 각 분야에 적용되며, 창작실제를 통해 예술이란 무엇이고 예술하다(예를 들면, 각 분야에서 서 춤추다, 소설 쓰기 등)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자의식적인 경향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메타예술의 기원은 안티(anti-반 反), 누보(nouveau- 신新)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Cunningham)의 작업에서 강하게 찾아볼 수 있다. 메타무용은 대체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양상으로 간주하고 메타무용(méta-danse)은 항상 언급되며, 결국 모든 현대 안무 작품들은 얼마만큼은 이 경향에 든다고 할 수 있다.

4. 공간과 이미지의 새로운 개념

무용공연에서 공간의 사용은 시간과 함께 필수적인 요소이다. 움직임과 공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데, 무용수는 그의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은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오늘날, 유럽의 현대무용은 움직임의 최소화를 추구하지만, 안무 예술가들은 3차원 공간에서의 무용수의 몸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공연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반적인 무대 세트들은 단순한 조형적 장식, 설치라는 개념을 넘어 새로운 멀티미디어의 개혁을 통해서 비디오 댄스(video dance) 라는 복합적인 예술계면에 다다르게 된다.

무대에서 인간의(무용수)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서 오는 일정한 제한으로 표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변화로, 안무가들은 다른 방법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런 기술혁신은 무대 위에서 그 동안 꾸준히 보여주었던 3차원의 몸의 정체성을 탈피하고 기존의 무대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표현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기술은 몸의 본성, 한계를 현실에서 다시 정의하게 만든다.

공연예술로써의 무용이 가지고 있던 표현의 한계를 테크놀로지의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안무가들은 무용수의 몸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 사이보그(몸- 기계)의 다른 움직임의 종류를 창작해내게 한다.

움직임은 사용된 테크놀로지 도구들과 함께 상호작용으로 현실화 되며 이런 타입의 작업들은 우리 사회 자본주의와 포스트모던과 함께 유지된다. 이미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의 작업에서 그 시도를 찾아볼 수 있고, 많은 젊은 안무 예술가들은 현실과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21세기의 관객들은 기존의 극장에서 새로운 지각(현실의 몸과 가상의 몸)을 받아

있으며, 기존의 예술들이 지닌 가치와 관습을 부정하고 새로운 예술의 형식을 추구한다.

들이는데 익숙하다. 또 인터넷에 의한 가상의 안무 작품의 시도로 공연이라는 개념과 그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안무예술작품에서 무대장치로써의 멀티미디어의 사용과 안무언어로써의 사용은 점점 자리를 넓혀가고 있고, 그런 흐름의 결과로 갖게 되는 몸, 춤, 공연, 공간, 시간 등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은 예술가들과 관객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IV. 결 론

오늘날 현대 안무가들은 더 이상 관객들이 예상했던 것을 정확히 따르지 않는다. 관객들은 현대무용공연을 통해 새로운 생각(안무예술가의 철학)과 이미지의 경계선에 다다르면서 당황함, 혼란과 의문을 느끼게 된다.

21세기 유럽 컨템포러리 댄스의 주요한 특징은 움직임의 부재, 축소로써 미니멀 아트와 연계됨을 알 수 있는데, 포스트 모던 댄스의 대표주자인 저드슨 그룹의 미니멀리즘, 움직임의 축소 또는 부재, 쇠말주의 퍼포먼스, 해프닝의 우연성, 소품이나 무대장치의 간략화, 개념예술에서의 실험적인 작업 등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누벨 당스의 시기를 지나면서 현대무용에서의 연극성, 무용수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실존성 등 독일 탄츠테아터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몸에 대한 인식 변화는 누드의 출현, 변형된 신체 형태학의 이미지를 초월하고, 테크놀로지의 수용과 타 예술과의 융합 등에서 추출되는 미학적 변이를 발견할 수 있다.

유럽 현대무용의 미학적 변이를 통한 외형적 표현형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양식화된 안무묘사의 파괴로 움직임의 부재, 축소로 연결되며 ‘농당스’라는 개념이 언급.
- 움직임과 몸에 대한 인식변화로 무용수의 누드 출현과 미의 기준의 변화는 새로운 몸의 해석에 접근.
- 제작과정이나 실험 작업 중점을 두고 연출의 형식화보다는 참여와 행위 및 상황을 구성.
- 인식, 관습 및 관점에 대한 반박으로 금기된 표현의 묘사가 확대.

- 즉흥 및 접촉즉흥에 중점을 두고 미묘하고 우연적인 움직임의 뉘앙스 표현.
-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사용으로 표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

사실 오늘날 현대 안무 작품들은 세밀하게 어떠한다고 한곳으로만 규정짓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서로 복잡하게 얽힌 식물뿌리들처럼 리좀(Rhizome)²²⁾ 유형을 나타내면서 무한히 증식하고 뻗어나가는 탈 코드화, 탈 영토화 현상을 보이는 게 그 현실이기 때문이다.

누벨 당스 시기를 지나 움직임의 부재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농 당스의 안무가들은 본인들의 작품이 무용의 범주 안에서 인식되는가에 예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자주 자극적이고, 상상적인 이런 무대들은 관객들의 관점과 예상했던 코드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오늘날 현대안무예술은 20세기 초 상젤리제 극장에서 초연된 니진스키의 '목신의 오후'나 '봄의 제전'처럼 어쩌면 거북스러움과 관객의 수용 범위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형화 하지 않고 그 틀을 깨드리며 안무자의 내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현대 예술의 속성이며, 그런 창조성은 유럽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안무창작에 중요한 핵심요소가 된다.

또한 '모든 공연안무 작품들은 항상 혼자 해석놀이에 의한 것이 아닌, 관객의 이해, 인식, 지각에 의해서 다시 쓰이는 것이다'²³⁾라는 것처럼, 오늘날 유럽 컨템포러리 댄스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애매모호함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분석적 이론과 심도 깊은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22) 포스트모던 철학자인 프랑스의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정신분석학자인 펠릭스 가타리(P.Gattari)가 함께 쓴 '천의 고원'에서 주장한, 리좀(Rhizome)은 하나의 뿌리로 귀착되는 나뭇가지 구조와 달리, 줄기가 마치 뿌리처럼 땅속으로 파고 들어 중심 없이 분기되고 접속되는 현상이며, 뿌리와 줄기의 구별이 사실상 모호해진 상태를 의미하며, 나무모양의 계층상 강한 수직구조가 아니라 뿌리 같은 수평화를 말하기도 한다.

23) Michel Bernard (2001). *De la création chorégraphique*, Centre national de la danse, p 213.

■참고문헌

- 김정현(2000). 「나체의 몸 철학」(서울: 문학과 실사).
- 제랄드 메이언(2008). 비평미학과 자기비평적 경계. 「춤비평II : 한국무용예술학회」 제12차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18-28.
- André Lepecki (2001). *Concept and Presence-The contemporary european danse scene*, Alexandra Carter.
- Dominique Frétard (2004), *Danse contemporaine - Danse et non-danse*, Cercle d'art.
- Gérard Mayen(2004). *Un bouleversement des codes*, Centre Pompidou, Direction de l'action éducative et des publics.
- Gérald Siegmund(1997), in *Ballet international, Tanz aktuell*, avrill 1997.
- Hubert Godard(2002), *Le geste et sa perception, La danse XXe siècle*, (Paris: Bordas).
- Isabelle Ginot(1999). *Histoire et Illusion, Théâtre dansé de notre temps*, Arche.
- Isabelle Ginot(1998), *Regard*, Armand Colin.
- Michel Bernard(2001). *De la création chorégraphique*, Centre national de la danse.
- Les Saison de La danse(2001). *La Jeune danse et après?*
- 공연과 리뷰(2009 여름호). André Lepecki, 김지명(역), 유럽현대무용계-미학적 변화와 실존성(Concept and Presence-The contemporary european danse scene).
- www.modafe.org
- www.wikipedia.org
- www.google.fr

논문투고일	2010년	2월	28일
심사일		3월	5일
심사완료일		3월	22일

www.kci.go.kr

Abstract

Research in the Forms of Expression and Aesthetic Change in European Contemporary Dance

Sun Myung OH

Lecturer

SungKyunKwan Univ. / HangYang Univ.

This research aims to study into the change in the new aesthetic concept and the forms of expression through the absence of movements, trivialism performance, contingency of happening, minimalism, theatricality of tanztheater, over-appearance and existentialism of nudity, convergence with different arts and so on, which has emerged in the European contemporary dance in the 21st century. Today the performances in the European contemporary dance has taken the combined forms of creation transcending the boundary of arts, featuring the encounter, convergence and acceptance of various cultures and different arts. These external features of the European contemporary dance has often shaken the codes that the audiences have expected.

Can the new aesthetic concept and forms appearing in the trend of contemporary arts of the day be placed under the category of dance? While the dance of the day is gradually changing through the creation process, does the encounter and convergence with the different arts suggest the new inter-face of the choreographic arts?

After the Nouvelle Danse in 1980s, there has been changes to the movements of choreographic reform assumed as the cognition change and the new concepts of the body, focusing on body and surroundings, body and mind or emotion, rather than the forms of complicated, formal and standardized composition. It may be somewhat early to give a specific definition or title to this flow. Since 1990s, however, there has been a growing trend of less or almost not dancing, which is classified as 'non-danse'. The key young choreographers associated with the non-danse movement are Jerome Bel, Xavier le Roy, Boris Charmatz, La Ribot (Spain), Vera Mantero (Portugal) and more. Among the older generations, the choreographers like Jan Fabre, Sasha Waltz

www.kci.go.kr

and Meg Stuart can be told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the works.

It is the mode and major feature of the artistic expression in the 21st century to break the mould of the artistic categories and to transcend its boundaries, and the European contemporary dance cannot be an exception. Through the change, chaos and acceptance of the choreographic codes in the contemporary dance, with the phenomena of de-coding and deterritorialization observed, this research will investigate into the aesthetic change and expression forms of European contemporary dance.

keywords: European contemporary dance(유럽 컨템포러리 댄스), Nouvelle danse(누벨댄스), Non-danse(농 댄스), absence of movements(움직임의 부재), change in body cognition(몸의 인식변화)